

# 갤러리 in 카페 동명동의 재생

갤러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최근 동명동 일대에 야기되기 시작한 카페들이 속속 들어선 가운데 카페 벽면을 이용한 지역작가들의 작은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동명동·장동·서석동 일대 카페에서 열린다. 11개 카페, 작가 13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개최된 '제2회 트렁크 띵 페스티벌'의 일환이다.



'트렁크 띵 페스티벌'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동명동 일대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난해 동구 동명·서석동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축제다. 청소년과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서석초 정문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고 있으며 크게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진행되는 '트렁크 띵 마켓'과 '동명동갤러리카페'로 구성된다.

지난 9월 12~13일 이틀 동안 열린 '트렁크 띵 마켓'과 별개로 갤러리카페는 좀더 지속적이고 충성로 축제 등과도 연계하기 위해 한달 동안 진행되고 있다.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프로젝트팀 'CF1(트렁크 띵 페스티벌 추진 주민협의회)' 이종우(48) 위원장은 "카페를 이용해 지역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동명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작가들도 도시재생에 어울리는 현대미술 쪽으로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카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조건이 고려됐다. 첫번째는 전시 공간이 넓었다. 큰 그림도 걸 수 있는 막힌 벽이 있는 곳이 우선 선택됐다. 또 카페 점주와 작가와의 소통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세번째는 건물주와 카페 점주가 동일한 곳이다. 일부 카페는 이번 페스티벌로 인해 손님이 많아지면 건물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카페 11곳, 작가 13명 참가

### 동명동갤러리카페 삼인삼 기획전

### 쇠퇴해 가는 동명·서석동 살리기

### 광주 카페로드 지도도 제작 배포

이 위원장은 '광주 카페로드'라는 지도도 제작해 배포했다. 지도에는 갤러리카페 및 일반 카페, 레스토랑, 각종 체험·전시관 등의 위치가 표시되었다. 조현 작가의 작품이 걸려있는 바니 쥬니스를 비롯해 오알지(류세현), 카페 보노(김병택·박경희), 라디오(백예경), 헤르츠(장원석), 유달리(김재영), 셀렉토(김영희), 푸른길 카페(이설재, 이경희), 스토아 어바니(김경란), 알랭(정다운), 샘이깊은물(노여운) 등 지도에 나와있는 코스를 따라가면 갤러리카페는 다 만날 수 있다. 이들 카페에서는 차 한잔과 함께 바로 옆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참여한 카페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실내

인테리어가 더 고급스럽고 예술적 느낌이 날 뿐 아니라 손님도 늘었다는 평가다. 전시 작가의 작품을 찾아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바니 쥬니스' 강승호 사장은 "원래는 그림을 안 걸었는데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작품을 설치하니 손님들도 좋아한다"며 "카페 이름도 알릴 수 있어 앞으로 계속 참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셀렉토' 정시현 사장은 "인테리어 측면에서 카페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며 "갤러리카페가 하나둘씩 생김에 이 일대에 하나의 특색이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카페와 작가는 제대로 된 표구나 보험 가입이 미흡해 작품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품 설치나 철거 과정에서 훼손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카페 특성상 손님들의 접근이 자유로워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부 작가와 카페 점주들이 작품 손상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점을 더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다음 페스티벌 때는 서울 흥대 클럽데이처럼 자유이용권 등을 구입하면 여러 카페에서 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피데이'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가을, 남도 축제에 빠지다

## 사색의 여유 찾아 떠나는 전국 유명 숲도 소개

가을의 남도는 축제의 계절이다. 지난달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시작으로 명량대첩 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순천만 갈대축제 등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10월호(240호)에서는 특집 '가을 축제에 빠지다'를 주제로 다양한 축제 이야기를 전한다. 남도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다채로운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색 축제를 함께 소개하고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과 호남대 김명중 교수로부터 축제의 '성공 기준'이 무엇인지 들어 본다.

기획물 '가을 숲을 찾아서'에서는 인간에게 원초적인 고향이자 요람인 숲을 찾아 떠나본다. 가을은 숲을 찾기에 좋은 계절이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예향'과 함께 청명함과 사색의 여유를 주는 숲으로 떠나 보자.

'예향 초대석'에서는 국내 고건축학계의 거장이자 건축역사학자인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만났다. 순천 출신인 김 총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자문역을 맡고 있다. 최근 문화전당을 방문한 그에게서 문화전당의 발전방안과 한국 건축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또다른 기획 연재물 '사람이 브랜드'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이자 프랑스 거장 르 코르뷔지에를 사사한 첫 번째 한국인 김중업이다. 안양예술공원에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10월호



탄생한 김중업 박물관을 돌아보며 건축가 김중업의 삶과 건축 철학을 조명했다.

신남도문화여지도는 순천기행을 끝으로 전남편을 마무리한다. 붉게 물든 칠면초 군락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1호 정원인 '순천만'을 더욱 빛나게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일한 읍성인 낙안읍성에서 순천 사람들의 역사와 숨결을 찾아보고 남도를 대표하는 사찰 송광사와 선암사를 둘러본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2기 레지던시 보고展

### 은암미술관 7일까지...3개월 창작활동 3명 작품 전시

은암미술관의 레지던시 사업인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2기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이 7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창작활동을 펼친 김영태·조광석·박정용 등 3인의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계림동을 들여다보고 작품들로 표현했다.

김영태 작가는 골목길과 대문, 편지함 등이 중첩된 사진으로 계림동의 과거 모습과 시간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 조각·설치 작업을 주로 하는 조광석 작가는 현대인들의 집과 도롱뇽·짱뚱이들의 서식처를 대비하며 환경·생명·공존을 되짚는다. 박정용 작가는 삶과 환경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FRP 등 각종 소재를 이용한 설치 작품에 담아냈다.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프로그램은 올해 3개월씩 3회에 걸쳐 9명의 작가들이 지역 주민



김영태 작 'Memories of the city 계림동'

들과 연계해 고장난 가구를 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주는 등 소소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3기 이우현(설치), 케이트 크라냐크(K.E.Kraynak·미국·회화), 장서희(디자인) 작가가 입주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



최근 '트렁크 띵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 갤러리카페 11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카페 '헤르츠'에 걸린 장원석 작가의 작품 <원쪽>과 조현 작가의 작품이 걸린 카페 '바니쥬니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